

2010년 국가직 7급 한국사 (국)책형

1. 다음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여주 혼암리 유적지 ◦ 부여 송국리 유적지 ◦ 서천 화금리 유적지

- ① 신석기시대 초기 농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석기 농기구와 잡곡 낱알이 발견되었다.
- ② 탄화미가 발견된 곳으로 청동기시대 일부 지역에서는 벼가 재배되었음을 보여준다.
- ③ 철제 농기구가 발견된 곳으로 철기시대 농업기술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 ④ 삼국시대 수리시설의 자취가 발견된 곳으로 벼농사가 보급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정답. ② 청동기시대의 유적지이다.

2. 발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혜공주 묘를 통하여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볼 수 있다.
- ② 유득공은 남(南)의 신라와 북(北)의 발해를 남북국이라 하였다.
- ③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발해가 고구려 계승국임을 표방하였다.
- ④ 3성 6부는 구성 기관들의 명칭이 당과 같았으나 운영 방식은 달랐다.

정답. ④ 명칭도 달랐다. 다만, ‘성’과 ‘부’제를 도입한 것이다. 우리 발해는 정당성(상서성)·선조성(문화성)·중대성(중서성), 그리고 6부도 충·인·의·예·지·신부(이·호·예·병·형·공부)로 이름을 붙였다.

3.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에 관한 기록이 있다.
- ②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 ③ 19세기 말 조선 정부는 울릉도 경영에 적극 나서면서 타지 주민들의 울릉도 이주를 금지하였다.
- ④ 대한제국기에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관할구역으로 석도(독도)를 함께 규정하였다.

정답. ③ 오히려 조선전기의 공도정책을 포기하고 울릉도로의 이주를 장려하였다(1882년 <울릉도 개척령>을 내린 이후 울릉도 개척이 확대되고, 울릉도로의 주민이주가 장려되었다).

4. 다음 자료와 같은 시기의 경제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금규정

목수 1인당 매일 돈 4전 2푼, 조각장 1인당 매일 돈 4전 2푼, 기와장 1인당 매일 쌀

3승과 돈 2전
석수(石手)
서울 한시웅 782일, 개성 고복인 752일, 광주 송복남 577일 반, 경기 정수대 694일,
충청 김순노미 168일
- 화성성역의례 -

- ① 인삼재배농과 홍삼제조업이 성장하였다.
- ② 국가사업에서 부역노동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 ③ 국가에 장인세를 바치는 납포장이 줄어들었다.
- ④ 농촌을 떠나 도시나 광산 등에서 임노동자가 되는 농민이 늘어났다.

정답. ③ 수공업에서 부역노동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 납포장화 현상이다. 부역제의 문란은 16c부터 이미 나타났고, 이 시기에 이르면 **납포장이 늘어나면서 아예 공장안이 철폐되기까지** 한다. 이는 이른바 ‘근대로의 진전 현상’이 정부에 의해 **법제적으로 승인되는 단계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방점을 잘 찍는 공부> - 접근법 중시

영정조기는 아주 중요하다.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적으로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이 시기를 바라보는 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적어도 이 부분만이라도 연구자들이 이 시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면 조선후기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조선역사의 독특하게 자리매김 된 시기이다.

- 정조대는 여러 가지 근대로의 진전현상이 나타나는데 경제사 분야에서는 자유로운 상업, 수공업의 진전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 시기는 상업과 수공업 각각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정부가 법제적으로까지 승인해주는 절차가 있었음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른바 신흥통공과 공장안 철폐이다.

5. 고려의 향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 향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 ② 상장례 등 의례를 행할 수 있는 조직이었다.
- ③ 매향 활동 등을 하는 불교의 신앙 조직이었다.
- ④ 마을의 노동력이 동원될 때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정답. ① 향도는 일종의 계 내지는 결사(結社) 활동이다.

6. 조선시대 상업의 추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5세기에 한양의 운중가에 시전이 세워지면서 시전상인들에게 사상을 단속하는 금난 전권이 부여되었다.

ㄴ. 조선 후기에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시기에 활동했던 보부상은 국가로부터 행상 허가를 받아야 했다.

ㄷ. 순조 때 일어난 서울의 ‘쌀폭동’은 경강상인이 도성 안의 미전상인을 움직일 정도로

이익을 가져온다. 소금·철물·포백 같은 종류는 장사가 아니면 운반할 수 없지만, 여섯 종류의 해로움은 도둑보다도 더하다.

- ① 유통 경제의 발전을 통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 ②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 ③ 역사에서 고급의 흥망이 시세(時勢)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파악하였다.
- ④ 관직은 적은데 과거에 응시한 사람이 많은 데서 붕당이 생긴다고 보았다.

정답. ① 성호 이익의 <6품론>에 대한 설명이다. 성호 이익은 농업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하였다.

9. 국가의 호구 파악의 기준과 역의 징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신라 민정문서에 의하면 남자는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
ㄴ. 고려에서는 편성된 호를 인구와 장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
ㄷ. 조선에서는 경군이 복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군인전을 지급하였다.
ㄹ. 조선 성종 때에는 경작하는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한 사람씩 요역에 동원하도록 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ㄹ

정답. ④

10. 천문학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구려 고분에서는 천문관측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별자리 그림이 확인된다.
- ② 신라에서는 천문관측이 제도화되어 서운관에서 천문학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다.
- ③ 고려에서는 천문관측을 담당한 관리들이 첨성대에서 관측 업무를 수행하였다.
- ④ 조선 초기에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하였다.

정답. ② 서운관은 고려의 사천대가 원간섭기 변화된 관제이다.

- 고려의 개성에도 천문대가 있었다. 수업시간에 나눠준 강의교재에 사진이 있다.



개성 천문대

11. (가),(나)의 나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집안사람들이 죽으면 가매장하였다가 뼈를 주려 커다란 목곽 안에 묻었다. 목곽 안에는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을 나무로 만들어 넣었다.
(나) 대군장이 없고 한(漢)시대 이래로 후, 읍군, 삼로라는 관직이 있어 하호를 다스렸다. 그 풍속은 산천을 중시하여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가) -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행해졌다.
- ②(가) - 천군이 제사를 주관하는 소도가 있었다.
- ③(나) -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산출되었다.
- ④(나) -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정답. ③ (가) 옥저에 관한 설명이다. (나) 동예에 관한 설명이다.

12. 삼국시대 관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라의 관등은 크게 솔계 관등과 덕계 관등으로 나뉜다.
- ② 고구려의 관등은 크게 형계 관등과 사자계 관등으로 나뉜다.
- ③ 백제의 관등은 복색제와 연관되어 공복의 색깔도 관등에 따라 3색으로 구분되었다.
- ④ 종래의 족장적 성격을 띤 다양한 세력집단이 왕 아래에 하나의 체계로 조직되어 상하관계를 이룬 것이다.

정답. ① 백제의 관등이다. 3국의 관등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했다.

13. 다음 글의 지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명왕의 일은 변화의 신이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요, 실로 나

라를 창시한 신기한 사적이니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앞으로 후세에 무엇을 볼 수 있으리오.

- 동명왕편 -

- ① 최씨 무인정권 하에서 관직 생활을 하였다.
- ②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 등을 포용하였다.
- ③ 삼국사기에 반영된 신라 계승 의식을 비판하였다.
- ④ 단군 계승 의식을 반영하여 민족적 자주의식을 고취하였다.

정답. ④ ④번은 원간섭기(충렬왕) 대 나온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를 말한다.

14. 6.25전쟁의 휴전회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공군이 참전하자 휴전회담은 일시 중단되었다.
- ②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같은 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 ③ 휴전회담이 난항에 빠지자 참전국들 간의 회담이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 ④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이승만은 거제도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였다.

정답. ②

- ① 중공군 참전 후 1·4 후퇴(전쟁 바로 다음 해) → 소련 유엔대사 말리크의 휴전협정 제의 → 삼팔선 부근에서 지속적인 국지전 전개하며 휴전협정 전개
- ③ 정치회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결국 이뤄지지 못하고 정전회담 후이나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 ④ 휴전협정 체결 전, 휴전협정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난국이었다.

15. 밑줄 친 ‘이 같은 풍습’과 관계가 먼 것은?

근래 지방의 민심이 사나워 수령을 능멸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전에 성상께서 행차하는 길에, 황주와 해주의 백성이 수령에 대한 불만을 성상의 수레 앞에서 호소하여, 수령을 바꾸어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이 같은 풍습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상은 이들을 고향군에 가두라고 한 다음 특별히 어사를 보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모두 석방하라 하였습니다.

- 영조실록 -

- ① 민권의식의 증대
- ② 소원제도의 확대
- ③ 언론언론의 발전
- ④ 상언, 격쟁의 증가

정답. ③ 영정조대의 특징은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한다. 이 시기는 공통적으로 봉당의 권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탕평책, 전랑과 언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특이하게 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나가는 정책을 취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상

언·격쟁과 같은 것들이다.

<후기사의 특징>

- 원칙상으로는 안되는 연구방법이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 조선후기 대표적 예 : 봉당정치적 관점, 세도정치

⇒ 이러한 도식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영정조 시기이다.

⇒ 영정조기는 조선후기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조선후기 정치사는 기본적으로 봉당사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다. 다만, 조선후기 정치사에서 영정조 시기만큼은 특별하다. 수업시간에 이 시기를 특별히 이른바 ‘가능성의 시기’로 접근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다.

영정조기는 정치사 파트에서 그나마 봉당사의 도식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이런 관점으로 학자들은 영정조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 늘 주의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

16. 다음 자료는 조선시대 어떤 군사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군사체제에 해당하는 것은?

을묘왜변 이후 김수문이 전라도에서 처음으로 도내의 여러 읍을 순변사,방어사, 조방장, 도원수와 본도 병사, 수사에게 소속시키니 여러 도에서 이를 본받았다. <중략> 이리하여 한번 위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멀고 가까운 곳의 군사를 모두 동원하여 빈 들판에 모아놓고, 1,000리 밖에서 오는 장수를 기다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장수는 아직 때맞추어 이르지 않았는데, 적은 이미 가까이 오게 되니 군심이 동요하여 반드시 궤멸하는 도리밖에 없다.

- 유성룡의 상계 -

- ① 진관체제
- ② 5군영체제
- ③ 속오군체제
- ④ 제승방략체제

정답. ④ 임진왜란 초기 주 패전요인이라 취급받고 있는 제승방략(체제)이다. 그림까지 곁들여 가면서 충분히 설명했던 터라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안다. 사실 제승방략은 ‘체제’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 제승방략은 진관체제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곧 진관체제로 복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17. 다음 주장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시대적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에게 이웃 나라가 있어도 스스로 결교(結交)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결교하니 이것은 나라가 없는 것이요, 우리에게 토지와 인민이 있어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대신 감독하게 하니, 이것은 임금이 없는 것이다. 나라가 없고, 임금이 없으니 우리 삼천리 인민은 모두 노예이며 신첩일 뿐이다. 남의 노예가 되고 남의 신첩이 된다면 살았다하여도 죽는 것만 못하다.

- 최익현, 포고팔도사민 -

- ① 일본의 강제 합병조약 체결로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다.
- ② 을미사변을 계기로 개혁을 단행하여 단발령을 실시하였다.
- ③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 ④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정답. ③ 개항기 시기에는 3차례의 척사운동과 3차례의 의병활동이 있다고 했다. 항시 범주화 시키는 작업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최익현은 척사운동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의병운동에서는 **을사의병대 가서야 거병**을 한다. 그가 70대 노구를 이끌고 참전한 이유와 그가 비록 전투를 치르지 않고 불과 몇 일 만에 해산했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쉬운 문제다.

18. 다음은 울산 호적을 분석한 표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시기	양반호	상민호	노비호
1729	26.29	59.78	13.93
1765	40.98	57.01	2.01
1804	53.47	45.61	0.92
1867	65.48	33.96	0.56

- ①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 ② 정조 때 신행통공을 단행하였다.
- ③ 순조 때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시켰다.
- ④ 흥선 대원군은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정답. ② 양반호의 증가와 노비호의 감소사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7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을 그대로 출제했다. 모의고사 수업시간에 그대로 출제했던 문제이다.

19. 다음 주장을 한 조선 후기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국은 서양과 180도 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그러나 실재는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땅에 따라서 모두 그러한 것이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 의산문답 -

- 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을 내놓았다.
- ② 신분이 아니라 재능과 학식의 여부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 ③ 사람과 만물의 본성이 같지 않다는 ‘인물성이론’의 입장에서 자연과학을 탐구하였다.
- ④ ‘실용’과 ‘허자’의 문답형식을 빌어 지금까지 믿어 온 고정관념을 상대주의 논법으로 비판하였다.

정답. ③ 인물성동론에서 북학파가 나왔다. 위의 글은 홍대용의 <의산문답>이다. 홍대용은 박지원과 더불어 탑골공원에서 자주 어울려 밤새 술마시고 얘기 나누는 것을 즐기던 무리 중의 하나였다.

20.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조선 태종 때에는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의 필사본이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세계지도 중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세조 때에는 양성지 등이 동국지도를 완성하였다. 16세기에 많은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조선방역지도가 현존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밀하고 과학적인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정삼기는 ㉢동국지도를 만들었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의 표시가 정밀하고, 목판으로 인쇄되었다.

<보기>

가. ㉠은 원나라의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추가한 것이다.
나. ㉡은 만주와 대마도를 포함하고 있어 당시 영토의식을 엿볼 수 있다.
다. ㉢은 거리를 알 수 있도록 10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어 있다.
라. ㉣은 100리를 1척으로 정하여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

- ① 가, 나
- ② 나, 다
- ③ 다, 라
- ④ 가, 라

정답. ①

㉠ 동국방역지도 : 울릉도는 표현되지 않았으나, 만주와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것에서 조선 전기 영토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외는 대체로 현재의 지도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 백리척

㉢ 십리마다 눈금찍어 표시